

張旺祿教授回甲紀念號에 부쳐서

學科長 趙炳泰

張旺祿教授라 하면 내게는 언제나 두툼한 책가방을 들고다니는 부자런하며, 生氣가 빨랄한 분이란 印象이 腦裡에 떠오른다. 이런 張 선생님이 금년에 60回生辰를 맞이하셨다. 영어영문학과 교수일동 모두 先生님께 祝賀를 드리고자 한다.

張 선생을 가까이 접하여 본 사람이면 누구나 認定하겠지마는 張 선생의 마음 속에는 항상 새로움을 追求하는 작업이 進行되고 있는 듯 느낄 것이다. 또한 보람찬 업적을 이루려는 氣質이 體質化되다 싶이 몸에 배어 있음을感知할 것이다. 내가 직접 目睹한 일을 한 예로 제시하고자 한다. 몇몇 사람이 모여서 담화를 나누고 있었을 때, 어떤 한 분이 유효적절한 表現文句를 우연히 발설한 적이 있었다. 張 선생은 이를 놓지지 않으려고 종이쪽지를 급히 求해서 이 表現文句를 적어놓은 것이었다. 張 선생은 必是 後日에 이 表現文句를 活用하려는 의도를 가졌음에 틀림없다고 나는 믿었다. 이처럼 張 선생은 創意的 과업을 推進하는 데 항상 沒頭하는 분이시다.

張 선생은 頭腦의活動이 민첩할 뿐만 아니라 頭腦作用의 秩序가 整然히 서 있는 듯 여러 일을 한꺼번에 처리하여도 착오가 없으며, 混線을 빚는 일이 결코 없으니, 두뇌가 비상하게 明哲한 분이시다.

張 선생은 健康이 유달리 좋아서인지 힘겨운 일을 계속하여도 결코 자치는 일이 없는 듯하다. 더구나 몸의 움직임이 빠르고 失禮의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언제나 紅顏의 앳된 모습을 지닌다. 그러므로 同年輩의 다른 教授들보다 10년 정도는 젊어보인다. 그 연유는 不斷히 머리를 쓰고 몸을 움직이는 活性的生活에서 健康이 다져진 까닭일 것이다. 지칠줄 모르는 듯, 부자런하고, 할 일이 없으면 찾아내어, 새로운 과제를 찾으려는 늘 意慾에 넘치는 분이시다.

學問의 面에서도 意慾이 대단하시다. 張博士는 專攻인 美國文學, 그중에서 특히 美國小說分野에서는 그의 學的業績은 찬란하며, 그 어느 국내외 학자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고 들 學界에서 定評이 나 있다.

張 선생은 人生의 實務面에서의 能力도 대단하시다. 張 선생이 현재 맡아보고 있는 우리나라 최대의 학회인 「한국 영어영문학회」의 회장으로서의 원활한 任務遂行은 널리 讀辭를 받고 있다. 難題를 닥치는대로 능난하게 處理하는 能力은 驚異의이다.

張 선생은 또한 親舊나 親知분이 많기로有名하다. 따르는 弟子도 무척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內國人과의 親交範圍가 넓은 것은 그의 性格이 圓滿하며 아무리 화나는 일이 있어도 좀처럼 얼굴을 붉히는 일이 없으며, 남의 잘못을 용서할 줄 아는 너그러움에서 연유한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나라 英文學者 중에서 張 선생만큼 많은 英·美國의 著名한 學者나 作家와 두터운 交分을 나누고 있는 분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의 研究室에 나열되어 있는 여러 물품들

P
420
Se 67h
1984
c.4

은 海外 學者 및 作家와의 友情이나 交誼의 情表일 것으로 짐작된다. 특히 지적하고자 하는 점은 張선생이 본격적인 큰 業績을 쌓기전에 新進學者로서 찬란히 登場했을 무렵의 지난날, 美國女流作家 Pearl Buck 女史의 作品을 연거푸 번역 및 연구하여 우리 나라에 소개한 功은 어느 누구도 잊지 못할 것이다.

이런 面를 지닌 張선생이 이제 耳順의 경지에 도달하였음은 어찌할 수 없는 일인 듯하다. 張선생의 연구실에서 얼마전에 우연히 목격한 事實인데, 어떤 書類를 검토할 때에 張선생이 돋보기 안경을 쓰고 있음을 나는 보았다. 平素의 錯覺이었겠지만 張선생처럼 紅顏의 젊은 교수가 돋보기 안경을 쓰고서 서류나 책을 보고 있다는 것을 想像조차 못하던 차에, 엄연한 現實世界의 現象을 폭도한 나는 뜻을 보았구나 하는 後悔스러운 생각조차 갖게 되었다. 정작 세월을 人間이 어찌 할 수 없는 것일까 하는 아쉬운 생각이 문득 들었다. 아직도 紅顏의 活氣찬 中年の 모습이 정작 張선생의 진모습이기를 뇌리속에 간직하고 싶은 내 소망이 부질없는 짓일까 自問해 본다.

張선생님의 回甲에 즈음하여 「萬壽無疆」을 축원하는 것은 정말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 왜냐하면 선생님의 體力과 意慾 및 容貌는 아직도 青年과 같기 때문이다. 우리 英語英文學科教授一同은 다 함께 張선생님의 後半生이 前半生처럼 創造의 意慾에 가득찬 生活이 되기를 진심으로 祈願한다.

1984년 11월 20일